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세상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12월 17일 (토) 제 1902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가장 큰 성탄 선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나의 가장 작은 숫자이다. 한 사람이 무엇 그리 대단하겠는가. 그러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곤 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 루터 한 사람이 흑암의 중세 시대에 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자신도 세상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와 이름이 비슷했던 마틴 루터 킹도 세상이 어두울 때 'I have a dream'이라는 짧은 그러나 절절한 비전을 선포하였다. 그 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꾸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는 한 사람 조지 무러는 또 어떤가. 가성비(價性比) 최대의 삶을 살았던 그는 항상 입을 넓게 열고 구하였다. 그로 인해 먹고 입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고아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겼고 세상은 크게 변화되었다.

어두운 들녘에 무시받던 한 아이가 있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6:9) 한 아이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나누었다. 그 한 아이는 오래지 않아 놀라운 기적을 보였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그 출발이 한 어린 소녀였다. 어린 사무엘은 기성세대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유일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깨어 있는 한 사람, 깨어 있는 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아이의 귀중함을 완전히 일깨워 주신 분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1부 12번째 곡이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가 반복되는 이 찬양은 이사야의 예언을 옮겨 부른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난 한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꾸셨다. 한 아기 예수님이 바꾸신 세상 가운데 철부지 아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내가 있다.

꽃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 주어야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고 김춘수 시인이 일러 주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서 수치스럽다며 자신을 쫓겨 감추고 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

야' 이 눈물겹도록 따뜻한 예수님의 부름 앞에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려 오신 한 아기 예수님은 무엇보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바꾸어 주신다. 나의 존재를 흔들며 깨워주신다.

'탄일종이 팽팽팽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팽팽팽 멀리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들어보시라. 성탄의 종이가 울린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이다. 그 종소리가 저 깊은 산골에도 저 먼 바닷가에도 울려 퍼지고 있지만 내 내면에도 분명히 들려야 한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성탄의 종소리에 속히 일어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어떤 성탄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일까. 나 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은 나 자신이 가장 큰 선물 아닐까. 그런 내가,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기에.

성탄특시

성탄, 하늘문을 여시네

-최명희

고요한 밤, 샛별 하나 반짝이네
천사들의 찬양소리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원의 빛 비추셨네



최명희 시인

여물통에 누이신 아기,
평화의 왕으로 오셨네
그 작은 눈망울에 하늘영광 담으셨네

성육의 광파레 하늘보좌 움직여
다윗의 계보에 "자기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탄생과 피흘림이 한 곳에서 만나 죄의 형틀 파쇄되니
의의 빛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문을 여시네

찬송하라 그의 이름!
경배하라 그의 사랑!
언약의 증거되신 아기예수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최명희 시인

이화여대 졸업, 1978년 도미 이후 개인콘서트 등 교회음악활동, 예피포드문학상 시부문 수상등단, 시전(시와 찬미의 전당) 동인, 연합시집 '아가무' 상재



시론
최해근 목사



성탄절 특별 설교
류승렬 목사



인터뷰
오세훈 목사, 김선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장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미백(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축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CCNE 인가 획득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학위과정별 전공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하얀 머리에 마른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평온히 잠드는 아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아기는 예수입니다. 시므온은 하늘을 향해 찬송합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29절). ‘이제 놓아 주시는데다’는 말은 라틴어로 Nunc Dimittis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앙인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주여 이제 종을 놓아 주시는데다, Domine, Nunc Dimittis’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시므온이 완수한 사명이 무엇이었기에 이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셨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다가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마디로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

다. 야담 이후 죄악으로 심판받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한이 없는 기다림이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다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다가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을 향한 유일한 소망 하나로 시므온은 매일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무성했던 머리가 빠지고 백발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야기 예수를 데리고 오느니라” (27절). 시므온은 한 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기다

리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때 나온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29절). 주여, 이제 종을 놓아 주시는데다, Domine, Nunc Dimittis!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명의 마지막 종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올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 50%였습니다. 8%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본질이 사라지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즐거운 성탄캐를 부르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날에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 열방의 빛 되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대 성전에 머물렀지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흑암의 땅에 하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세인트 토마스였습니다. 이 섬은 당시에는 덴마크가 점령한 식민지였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노예들을 끌고가서 사탕수를 재배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목사가 된 진젠돌프 백작은 그곳에 흑인 노예들에게 전도할 지원자를 보냈습니다. 26명의 사람이 지원했고, 두 사람을 먼저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데이빗 니츠만과 레오나드 도버였습니다. 노예들이 있는 곳에 자유인의 입국이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덴마크 여왕에게 자신들이 노예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예의 신분

옆에는 모라비안의 정신을 담은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침 교회 옆 기도실에는 금요일 오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의 흑인 성도가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들과 함께 감격적인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주님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들의 다음 대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삽니다. 그들이 간직한 복음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그 십자가 복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무엇을 위해 삶을 바쳐야 할 것인지 방향이 보입니다. 생명을 바친다 해도 조금도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런 특권이 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일생을 기다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므온이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낫고 천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자를 보았습니까? 사망의 어둠에 빠져 심판과 죽음으로 끌려 갔을 이방인 되었던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시므온이 보았던 예수님, 그 옛날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만났던 그 동일한 그 예수님을 보셨다면 우리는 외쳐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Domine, Nunc Dimittis!

preachchrist@kcpc.org

성탄절 특별 설교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NUNC DIMITTIS
누가복음 2:22-33



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1-32절). 이 한 마디를 위해 시므온은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그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 그가 외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시므온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40일이 된 아기를 안고 외친 고백은 구원자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구원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33%,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크리스마스 파티 21%. 네번째 17%를 차지한 것이 예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관해 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일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아브라함도 다윗도 멀리서 보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 목자들이 전한 바로 그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그 이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동일하게 시므온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주재여, 이제는 종을 놓아 주시는데다. 이제 제 사명을 마쳤습니다. Domine, Nunc Dimittis!

둘째,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시므온이 두번째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2절).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해 오신 구세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와 가족에 고정된 시선에서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관심이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고통의 땅 아프리카와 영적으로 죽어가는 유럽의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던 때에 중남미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과 세인트 존이라는 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준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흔적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평범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727년 8월 13일 부흥회 때 성령이 임했고 온 교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관심에서 세상을 향한 관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으로 세인트 토마스에서 크리스마스 두 주 전 1732년 12월 13일 도착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백인 영주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노예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밤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와 내내는 한 주 동안 그 모라비안 교회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섬 곳곳을 뒤지다가 돌아오기 전날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다는 곳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감격적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뉴헤른후트 모라비안 교회 (New Herrnhut Moravian Church). 1732년에 두 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독일에서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킴이’라는 헤른후트(Herrnhut)였고 이곳은 뉴헤른후트(New Herrnhut) 교회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흑인 여성도가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함없이 서 있는 예배당 강대상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2022년 성탄절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롬의 평화가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며, 축하하는 모든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12월

대표회장 : 장석민 목사
수석공동회장 : 나성균 목사
사무총장 : 이제선 목사

공동회장
 황동익 목사 (뉴욕) | 김용현 목사 (남부) | 김동욱 목사 (중부)
 진유철 목사 (서부) | 정치현 목사 (남미) | 임현수 목사 (캐나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 WWW.IKCCA.ORG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اید장로교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아 각 가정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펜데믹 시기에 이발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근처에 있는 이발소로 머리를 깎으러 갔었다. 그

런데 머리를 깎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슈퍼마켓 쪽에서 아주 작게 성탄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5명 되는 백인 미국 교회 성도들이 서서 우리

귀에 익숙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갔고 한 백인 여자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전도지 한 장을 주어서 받았다. 그 종이에 용서에 대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 있었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렇게 순수한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백인들이 그렇게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전도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 솜씨는 아니었다. 악보를 가져와서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보면서 불렀고 소리가 작았다.

악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듯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돈을 모으기 위해 이런 것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멋지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고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

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이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능력이 필요 없고 단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소리라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때 믿는 자는 다 믿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창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행동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는 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때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게나마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 모습을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나의 친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
david2lord@hotmail.com

연방법으로 동성결혼을 “존중(?)” 한다!

미 언론, ‘결혼존중법안’ 통과 과정과 향후 미칠 파장 보도

미 연방 하원이 지난 8일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를 더하면서 258대 169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동 법안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2명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

달 29일에 통과됐다. 그리고 이날(8일) 하원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제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와 가치가 심각한 손상과 함께 향후 가족제도의 향방까지도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지지하며, 신속하게 서명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 하 의원 모두 법안을 처리해준 데 감사를 전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동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온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할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바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할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합법성을 인정한 대법관의 판례가 폐기되더라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의회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연방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의회 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

았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했다. 앞서 상원에서 법안 토론 당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주 정부들이 동성결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심각한 위험도 없다”며 “결혼존중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 앞서 지난 8월에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60표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 상원의 민주당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상원에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지난 달 상원에 이어 8일 하원에서도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하원의 표결 결과를 보면 법안 원안보다 수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더 적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의회는 동성결혼을 다루기 위험한 영역으로 봤지만, 이제는 동성결혼이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의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봐도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1996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었을 때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지지 응답률이 71%에 달했다.

한편 결혼 존중법이 통과될 경우 종교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라무센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천명 중 과반수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야후 뉴스는 결혼존중법과 관련해 좌파와 우파 사이에 동성애 권리와 종교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12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종교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킨 수정안이 제시되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셜미디어에 많은 지지자를 가진 좌파 인사들은 법안에 일부 불만이 있지만 대체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한다.

결혼보호법을 비판하는 계층에서는 결혼존중법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우파에서는 이 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종교적 자유 조항을 지지하고 그들의 신앙 가르침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종교 단체들이 있다.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목회 경영 리더십 대학원

2023년 봄 학기 - 개강 2023년 2월 6일

모집과정

- MBA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 Doctor of Leadership : Ministry/ Mission Leadership
- Ph.D. in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매없이 학점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636) 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교회와 크리스천들, 자녀교육에 위협적인 "모든 형태의 결혼 존중 시행령 "Respect For Marriage Act -HR 8404" 통과!!!

또 다른 차원의 'Anti-기독교' 역사의 문이 열리고 있다!

"RFMA 모든 형태의 결혼 존중" 이 법안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며, 우리 차세대에게는 더 깊은 혼돈과 죄와 친근해지는 역사를 열게 될 발판을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매우 위험한 법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연함이며, 피부색, 국적,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미국 어느 주에서나 법적으로 그 사랑과 결혼은 보호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며, 두 번째 주장은, 이 법안을 주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수정을 요청했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토의와 법안수정까지" 충분히 반영했다는 주장입니다.

한 예로, 이 법안의 Section 7 에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Two individuals 두 명이"라고 적힌 문구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a) For the purposes of any Federal law, rule, or regulation in which marital status is a factor, an individual shall be considered married if that individual's marriage is between 2 individuals and is valid in the State where the marriage was entered into or, in the case of a marriage entered into outside any State, if the marriage is between 2 individuals and is valid in the place where entered into and the marriage could have been entered into in a State.

이들이 이 법안을 제출하고 급히 통과시킨 이유들:

지금 현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 중 몇몇이 2015년에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 케이스를 다시 보자 한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1996년도에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자 탄생했던 DOMA (Defense of Marriage Act - 결혼 보호 시행령) 안에 남아있는 Section 2까지도 완전히 무효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DOMA에서 "Marriage 결혼"의 성경적 정의를 보호하던 Section 3 는 이미,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무너지는 아픔을 우리는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안에 동성결혼은 합법화 안되었나?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에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서 RFMA 가 필요했다는 언

론들이 있는데, 사실일까?? 틀렸습니 다! CNN과 같은 주류 언론들과 어떤 때는 Fact Checkers 마저도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혼돈시키는 내용을 내보 내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안의 동성결혼 배경: 먼저 올바른 알아야 함!!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모든 주들의 금지지를 기각하고, 50개 주 모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특별히 Obergefell v. Hodges 케이스를 통해 out-of-state same-sex marriage licenses까지도 모든 주들은 동성 결혼 허가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동성결혼을 둘러싼 모든 주들 간의 법적 문제를 종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동성 커플의 결혼식과 다른 주에서 행해진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모두 인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의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2004년 미정부 회계국에 따르면, 1,138개의 연방 권리와 보호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분야에는 사회 보장 혜택, 잠전 용사 혜택, 건강 보험, 메디 케이드, 병원 방문, 재산세, 퇴직 저축, 연금, 가족 휴가, 그리고 이민법이 포함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2015년 7월 9 일 이후,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 커플들은 이성 결혼 커플들이 받고 있는 이 모든 연방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Respect for Marriage 결혼 존중 법안이 이들은 왜 필요한가? 영적 전쟁입니다!!

다음호에 여기에 대한 이유와, RFMA의 문제점을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tvnext.org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현재 교회 성가대 테너를 맡고 있습니다. 구약 다윗 성가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성가대원들의 자격과 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에 이집사가

A: 좋은 질문입니다. 성가대원은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요 정치가요 행정가인 동시에 음악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악인이 들었을 때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급 잘 타는 사람을 구할 때 전국에서 발탁될 정도로 탁월한 수급을 타는 기악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늙어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 찬양대의 조직입니다. 약 4천명의 찬양대원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다윗 찬양대원은 음악 실력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레위지와 사람들 가운데서만 선택되었습니다. 12지파에서 레위지파로 레위지파에서도 10명중에 한명이 선택되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 봉사 위해 특별히 부르받은 사람들인데 역대 상 23장을 보면 레위인의 총수가 3만 8천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여호와의 전 사무담당하는 자가 2만 8천 명이고 관원과 재판관이 6천명 이었고 문지기가 4천명 그리고 악기로 여호와의 찬양하는 다윗찬양대가 4천명이었습니다.

다윗 찬양대원들의 조직을 말한다면 헤만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자로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만큼 신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찬양을 맡은 자는 음악적인 실력도 탁월해야 하지만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2사람의 지휘자가 있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연습으로 최고의 찬양을..."

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감독과 지휘하에 찬양대원 4천명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자가 288명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전문가들로 찬양을 배워 익숙하여 찬양대원 4천명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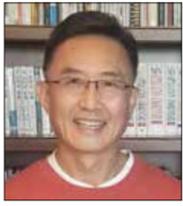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찬양대원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전 문성의 원리는 골방 골몰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연습 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때 최선의 연습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예배학 강의에 슈미트라는 교수가 찬양대의 1차 목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찬양대원들의 사명은 첫째로 설교 전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찬양을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중 찬양이 차지하지 않게 보통보다 조금 빨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대가 예배 찬양곡을 미리 한번 불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글로벌찬양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5:30(월-토)</p> <p>tel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브키도회: 오전 6:00(월-토) 글로벌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권영자,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브키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브키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글로벌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세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브키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19-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장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글로벌예배: 매일 저녁 8:00(월-토) 세브키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hurch3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셀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셀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셀비치 Clubhouse 3 room 1(1F)</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세브키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일일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562)694-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브키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예배: 오후 7:30(수일예배: 오후 7:30) 일일예배: 오후 9:15, 11:30</p> <p>Tel: (714)446-6202, www.grocei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브키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글로벌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브키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일 예배: 오후 8:00(본당) 세브키도회: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새마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브키도: 오전 5:30(월-금) 수-일 예배: "어짐같이 임하여네"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 단상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진지한 진단”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당 안에는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많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교인은 진정한 회심이 없이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결코 그리스도를 초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종교인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경건 생활(말씀 묵상, 기도, 관용, 용서, 사랑 등)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감성적인 터치를 해 주는 이야기와 일반적인 생활 교훈들에 대해서는 귀를 종긋 세우고 군중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일에는 지루해합니다. 오 주여!

종교인은 최고의 진리인 성경이 증거 하는 옛 진리(그리스도의 복음)를 반복적으로 듣는 일에 매우 힘겨워합니다. 마치 아테네 사람들처럼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난 100년간 옛 진리를 초월하는 일을 느슨하게 한 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름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남긴 유산은 현대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신학자일수록 널리 알려진 설교자일수록 뼈를 깎아 내는 듯한 참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를 원합니다.

- 1. 진정으로 회심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가?
2.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3. 진정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두 번째 위격 되시는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4.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5. 진정으로 혼자서도 찬양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6. 진정으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7.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의 완강한 천성적인 성품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옛 진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더욱 풍성히 거하고자 사함을 받고 그분을 목상해 보

십시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순전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가장 품격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내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 최대 천연가스전, 일일 생산량 1억m³ 돌파



중국 육지 최대 가스전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유천연가스그룹 장칭(長慶) 유전 쑤리거(蘇里格) 가스전의 일일 천연 가스 생산량이 1억m³를 돌파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에 따르면 쑤리거 가스전은 중국에서 최초로 일일 생산량이 1억m³를 돌파한 가스전이며 5000만 가구의 일일 생활용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쑤리거 가스전은 오르도스 분지 북부에 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탐사 저장량이 1조m³를 돌파한 대형 가스전이다. 탐사 확인된 지질 저장량이 4.64조m³다. 올해 쑤리거 가스전에서 신규 생산에 투입한 가스전은 1204개이며 일일 가스 생산량은 1625만m³ 증가했다. 현재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은 286.8억m³이며, 올해 연말까지 생산량이 300억m³를 넘어서 중국 내륙 치밀 가스(tight gas) 생산량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 칼부림 어디까지...트위터, 진실·안전위원회 해체일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가 인권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 활동을 해온 진실·안전위원회를 해체했다. 인권단체와 싱크탱크, 각종 학계 출신 등의 인사들로 이뤄진 이 위원회는 2016년 발족해 트위터의 제품개발이나 규정 제정 등에 자문을 해왔으며, 특히 온라인상의 아동 안전을 지키고 혐오 표현 등에 맞서왔다. 트위터는 지난 11일 밤 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위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외부의 통찰력을 우리의 제품과 경영에 담아내는 최선을 방안을 재평가하고 있다”면서 “진실·안전위원회가 이 과제를 수행할 최적의 조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를 안전하고 유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는 계속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주 이 위원회 위원 3명이 트위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임한 바 있다. 앤 콜리아 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의 주장과는 반대로 트위터 이용자의 안전성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이들의 사임을 알리며 “그들은 아동 착취에 대한 조치를 수년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큰 논란으로 번져 진실·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 머스크의 이 트윗은 삭제됐다. 진실·안전위원회 소속 비영리 센터인 ‘민주주의와 정보통신센터’는 성명에서 “트위터 지도부가 위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원이 위협에 처했다”고 밝혔다.

주미 중대사도 국경 재개방 시사

친강 주미 중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앞으

로 중국으로의 국제 여행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국경 재개방 방침을 시사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면서 국내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한 중국은 조만간 해외를 오가는 항공편을 늘리고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도 대폭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 대사는 이날 한 뉴스 플랫폼이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책은 항상 역동적이며 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방역 정책은 완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더욱 완화돼 중국으로의 국제 여행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동안 해외 항공편 운항을 거의 중단하고 입국자를 장기간 격리시키는 폐쇄 정책을 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5+3’(시설 격리 5일, 자택 격리 3일)인 격리 방침이 다음 달 9일부터 ‘0+3’으로 대폭 완화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방문 시 큰 부담이었던 시설 격리가 없어지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매체 HK01도 13일 광둥성 보건당국을 인용해 “중국이 이르면 내년 1월 9일 홍콩 주민에 대해 격리 없는 중국 여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홍콩 여행객에 대해 사흘 동안 집에서 의료적 감시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전염병 상황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휘발유·식료품 가격 뛰어났다美 물가 정점론 확산

미국에서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다. 다만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하락 속도는 완만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일(현지시간) 1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2%로 10월 조사 때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다. 소비자 심리를 누그러뜨린 건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하락이다. 11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앞으로 1년간 휘발유 가격이 4.7%, 식료품 가격이 8.3% 각각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조사보다 각각 0.6% 포인트, 0.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실제 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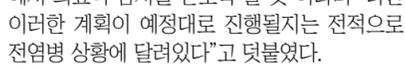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 전역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262달러로 1년 전(3.329달러)보다 낮아졌다. 지난 6월 고점(갤런당 5.016 달러)보다 33% 이상 싸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낮은 지역은 미국에서 34개 주에 달한다. 앤드류 그로스 AAA 대변인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많은 주에서 내년 초까지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심리도 공포 얼어붙었다. 1년 후 집값 상승률 전망치는 전월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1.0%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 간 임금상승률 전망치 역시 전월보다 0.2% 포인트 낮아진 2.8%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 중국의 경기 재개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변수도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개월 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러시아 규탄 “미친 범죄적 침공 전쟁”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10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안 라친스키 메모리얼 이사회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및 구소련권 국가의 역사와 지위, 독립을 폄하하고 있다”며 “미친 범죄적 침공 전쟁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정부 관계자가 다른 두 공동 수상자가 부적절하므로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라고 압박했으나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동 수상자인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의 올렉산드라 마트비츠크 대표는 “평화는 공격받는 국가가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달성될 수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에 협력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 수감 중인 벨라루스 인권 활동가 알렉스 비알리야츠키의 아내 나탈리아 핀추크는 “러시아와 푸틴이 바라는 우크라이나는 종속적인 독재 정권”이라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오늘날의 벨라루스와 정확히 같다”고 말했다.

이란, 국제사회 비판 이렇듯, 반정부 시위대 사형 공개집행

이란 사법부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반정부 시위대의 두 번째 사형 집행을 했다. 사법부의 미진 통신은 12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마지드 레자 라흐나바드(23)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라흐나바드는 지난달 17일 동부 도시 마슈하드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진압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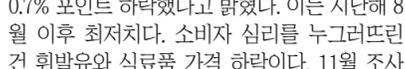


38노스 “북러 철도무역 순조롭게 진행”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두만강 인근 북한 철도 야적장에서 러시아에서 온 하역 화물이 최소 2차레 이상 관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열차로 실어 보낸 물품들이 두만강 인근 북한 철도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해당 야적장은 두만강 조리진선다리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38노스는 두만강 인근 북한 철도 야적장이 지난해 하반기 확장돼 러시아에서 오는 물품의 검역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만강 일대 화물 처리 확대는 대유행 전보다 물동량이 늘어나고 향후 양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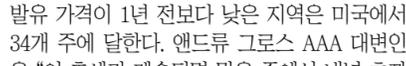
38노스 “북러 철도무역 순조롭게 진행”

38노스는 또 압록강 인근 의주 비행장이 지난해 중국발(發) 상품들을 검역하기 위한 대규모 검역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보안구역인 해당 철도 야적장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 너머에는 50m 간격으로 초소가 있다. 38노스는 “대유행 완화에 따라 북한이 세상에 서서히 문을 열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언급했다. 북러 간 철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에 운행을 중단됐다가 2년 8개월여 만인 지난달 재개됐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북중 간 철도 무역도 지난 9월 재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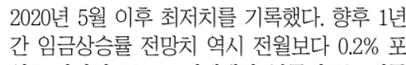
중국 육지 최대 가스전, 일일 생산량 1억m³ 돌파

중국 육지 최대 가스전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유천연가스그룹 장칭(長慶) 유전 쑤리거(蘇里格) 가스전의 일일 천연 가스 생산량이 1억m³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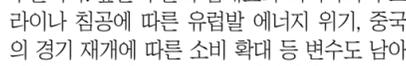
휘발유·식료품 가격 뛰어났다美 물가 정점론 확산

미국에서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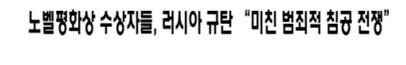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러시아 규탄 “미친 범죄적 침공 전쟁”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10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국제사회 비판 이렇듯, 반정부 시위대 사형 공개집행

이란 사법부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반정부 시위대의 두 번째 사형 집행을 했다.



38노스 “북러 철도무역 순조롭게 진행”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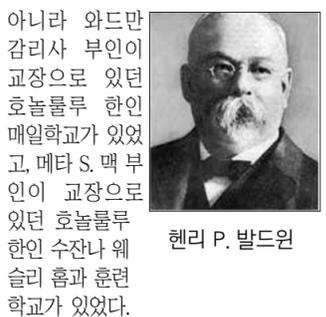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60. 장용운(1880-?)

장용운(Chang Yong Woon)은 1880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그는 송창리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이 송창리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구한말 유학생, 선비, 농부, 군인, 머슴, 역부, 건달 등으로 구성된 첫 하와이 노동 이민선 계류이 1902년 12월에 하와이로 출발했고, 이듬해 1월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노동 이민선은 그 후 계속되었는데 장용운은 25세가 되던 1905년에 아내를 한국에 두고 홀로 하와이 노동 이민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시베리아 선박을 타고 그해 5월 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장용운은 마우이섬 라하이아 지역에 있던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였던 것 같고, 라하이아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농장지배인이었던 헨리 P. 발드윈은 한인 노동자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반대했고, 라하이아 한인 감리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1842년에 마우이섬 라하이아에서 드와이트 발드윈 선교사가 가정에서 태어나 선교적인 마음으로 한인 노동자를 도왔고, 1911년에 그가 소천한 후 그를 기념한 H.P. 발드윈 기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의 이름을 딴 학교까지 있었다.

장용운이 하와이에 온 지 약 3년이 되던 1908년 1월에 제3회 하와이 선교 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였다.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은 데이비드 H. 무어 박사였고, 감리사는 존 W. 와드만 목사였다. 하와이 선교연회가 세워진 지 3년이었지만 한인 교역자의 연회 진출이 역력했다. 한인 총무에 홍치범 목사가 있고, 보조직으로 홍치범과 이성이 있었으며, 조희원 과정에 있던 자로는 1년차에 신반석, 최진태, 김이제, 김유순이 있었고, 2년차에 민찬호, 윤병구, 이형C, 홍치범, 김유순이 있었다. 그리고 민찬호가 1903년 이후 하와이 선교연회의 보조로 출판된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보의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이대수가 출판을 책임졌다. 그뿐만



헨리 P. 발드윈

아니라 와드만 감리사 부인이 교장으로 있던 호놀룰루 한인 메일학교가 있었고, 메타 S. 맥 부인이 교장으로 있던 호놀룰루 한인 수잔나 웨슬리 흡과 훈련 학교가 있었다.

하와이 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38개에서 40개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평양대부흥 운동을 듣고 특별히 술꾼과 도박꾼과 이판쟁이가 예수께로 돌아와 새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들 중 15개 한인감리교회는 부분적으로 자립하여 성장했다.

위의 1908년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장용운은 두 지역에 파송을 받았다. 첫 지역은 마우이섬의 라하이아, 하나 그리고 기파홀루 지역이다. 그는 이 세 지역에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그해 위의 세 지역에 대한 교세가 보고된 바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에 한인 노동자가 거주하므로 처음으로 선교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년 후 1909년 3월에 보고된 교세 통계에 이들 세 지역에 관한 보고가 없어 장용운의 1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달에 누군가를 파송할 계획이 있어서 한인 선교를 기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장용운이 파송 받은 두 번째 지역은 아주 큰 사탕수수밭이 있던 스프레클스

빌이다. 그는 본 교회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하와이 선교연회는 홍치범 목사를 순회 전도 목사로 파송하여 위의 스프레클스빌지역과 하마구아보고지역을 순회 전도하도록 하였고, 그는 지난 4, 5년간 스프레클스빌지역에 거주하면서 순회 전도에 임하였다. 다행히 이달에 보고된 위의 두 교회의 교세가 합쳐진 보고가 있지만 스프레클스빌 교회의 교세를 확인할 수 없으나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가 교세의 절대다수인 것 같다. 등록된 교인은 25명이었고, 이중 세례 교인이 9명이었으며, 나머지 16명이 학습 교인이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수는 9명이었는데 성인 세례 교인이 8명이었고, 어린이 세례 교인이 1명이었다.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는데 교직원 4명이었고, 등록 학생은 30명이었다. 예배당 사용료로 지난 1년간 지급한 액수가 280달러였고, 지금까지 예배당 관계로 전 빛 50달러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교인들이 예배당을 위하여 150달러를 헌금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이웃 H.P. 발드윈 농장지배인이 도움을 주어 조만간에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었다.

1909년 3월에 보고된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와 하마구아보고 한인감리교회가 합쳐진 교세 통계는 1년 전보다 두 배 반이나 증가했다. 등록 교인수는 64명으로 세례교인이 31명이었고,

도 없었다. 그러므로 장용운과 순회 전도 목사를 보내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노동자의 전도를 시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09년 3월에 보고한 교세 통계에는 하나 한인감리교회 통계 보고가 없고, 단지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보고만 있는데 이 보고에 하나 한인감리교회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하나감리교회 통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1910년 3월에 보고된 교세 통계에도 일어난다. 곧 하나 한인감리교회 보고가 따로 없어 장용운의 노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1910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장용운이 지방 전도사로 추천받아 교역자 평가부에서 시행한 시험을 치러 85점을 맞아 지방 전도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해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5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그해 감독이었던 에드윈 H. 휴즈 목사로부터 그가 하와이섬 부나지역의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 교회에 목사나 권사를 따로 파송하지 않았으나 아주 가까이 있는 올라 지역에 파송된 홍한식 목사가 순회 전도 목사로서 부나 지역까지 섬겼던 것 같으나 그가 하갈나우 지역과 힐로 지역까지 맡게 되어 있으나 부나 지역을 포함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910년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하갈나우 지역과 힐로 지역을 포함한 올

라 지역 교세는 하와이섬에서 가장 컸다. 등록된 교인이 85명이었는데 세례 교인이 42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43명이었다. 주일학교에는 6명의 교직원이 있었고, 등록된 학생은 66명이었는데 평균 53명이 출석했고, 엠피스 청년회 등에서 23명이 등록했다. 그런데 이 교세에서 부나 지역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부나 지역은 극소수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1년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푸나 지역에 파송한 목사나 지방 전도사나 권사가 없었으므로 이 지역에서 노동하던 한인 노동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지역 선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1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제6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장용운이 1년차 지방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2년 차 지방 전도사 과정에 들어섰다. 그달에 그는 마우이섬 하나 지역에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조연택 목사를 하나 지역과 더불어 기파홀루 지역까지 순회하며 전도하는 순회 목사로 파송했

으나 권사를 파송하지는 않았다. 그달에 보고된 하나 지역 교세는 하나 지역과 기파홀루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에 등록된 교인이 23명이었는데 세례교인이 11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12명이었다. 두 지역에 각각 주일학교가 있었고, 8명의 교직원이 있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25명이었다. 하나 지역에 엠피스 청년회 고등부가 있었고, 11명이 등록하였다. 내지선교비로 8달러, 주일학교비로 1달러 그리고 미국성서공회에 1달러를 헌금하여 총 10달러를 헌금하였는데 이 금액은 거의 하나 지역에서 헌금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 지역에 예배당과 사택이 있었고, 시가는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였다.

1912년부터 장용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1916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1회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 나타난다. 그해 감독은 윌슨 S. 루이스 목사였고, 감리사는 윌리엄 H. 프라이 목사였다. 그리고 한인 총무는 김CH였고, 한인 통역인은 이승만이였다. 그달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장용운을 마우이 하구 지역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해 마우이섬에는 한인 감리교회가 두 곳에 더 있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가 김이제가 파송되었고, 남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하나 한인감리교회에 최S은이 파송되었다. 그달에 보고된 교세 통계에는 하갈나우 지역이 보고되어 있지 않아 당시 교세를 확인할 수 없다.

1917년 이후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 지방 전도사나 권사가 기록되지 않다가 1932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 장용운이 하와이섬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교역자로 출석하였다. 1년 전에 그가 지방 전도사로 파송되었을 것 같고, 순회 목사인 이관목과 동역했다고 본다. 1년간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1명이었고, 성인 세례를 받은 자가 4명이었으며, 무려 76명이 등록하였으므로 장용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해에 O.W. 용운이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에 지방 전도사가 아니면 권사로 파송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혹 장용운이 아니었나 싶다.

장용운의 사역은 적어도 1908년부터 1916년까지와 1932년을 합하여 9년간 사역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1917년부터 1932년까지와 1933년 이후도 지방 전도사로 파송 받았다면 그의 선교 기간은 9년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damien.sohn@gmail.com

1908년 하와이 선교연회 두 지역 파송 1909년 순회 전도 목사 파송 잠정적 결의 1910년 하와이섬 부나지역 지방 전도사 파송 1932년 하와이섬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교역자

나머지 33명은 학습 교인이었다. 세례 받은 수는 24명이었는데 성인 세례 교인이 16명이었고, 어린이 세례 교인이 8명이었다. 주일학교가 하마구아보고 한인감리교회를 포함하여 두 곳이었으며 교직원 9명이었고, 등록 학생은 50명이었고, 평균 출석이 40명이었다. 위의 수치의 대부분이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교세인 것 같다. 그해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가 예배당을 마련하였는데 시가가 750달러였다.

1909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4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이었던 찰스 W. 스미스 박사는 장용운을 마우이섬 하나에 있는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런데 그달에 하나 한인감리교회에 한인 목사를 파송하지 못했으나 마우이섬의 하나 지역과 라하이아 지역과 기파홀루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 목사를 파송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의하였다. 그달에 접수된 교회 현황 보고에는 하나 한인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라하이아 지역과 기파홀루 지역에 관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평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예배: 오후 2시 수요일 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일 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0 (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부, 3부)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02: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361-9199, www.mckny.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크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예배: 오전 11:00 평일 예배: 오전 02:00 수요일 예배: 오후 08:45 금요일 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94, www.kccb.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평일 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새벽예배: 오후 6:00 수요일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교인 특별 새벽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ur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9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저녁 7:00 수요일 기도회: 저녁 9:00 7/14 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 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6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nn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강성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 금, 토, 8:30) 금요 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 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포야 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28-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8, Fax: 3209-8343 Rua Joaquim Plaza, 281 Camocui S/Paulo CEP 01528-010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신학교 교수 2. 임아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3:00 주일 3부 예배: 오후 5:00 Tel: (52) 33-36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ajara MEX(멕시코)					

말씀과 땅 (23) - 왕의 인장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창세기를 묵상하며 2022년을 감사히 보냈다. 성경의 첫째에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그 중 세 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형상

바울은 창세기 1장의 아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롬5:14).

이 구절에서 “오실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었다는 말씀이 된다. “모형(typos)”의 사전적 의미는 인장을 찍었을 때 남는 인영을 뜻한다. 고대에 두루마리로 된 공문서를 보낼 때 이를 봉인하기 위해 묶은 노끈의 이음매에 점토덩어리인 봉니를 붙이고 인장을 눌러 찍었는데, 수취인은 봉니에 찍힌 인영을 보고 발신자와 내용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금 단순화시켜 적용해 보자면 이런 셈이다: 우리가 창세기라는 공문서를 수신했는데(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 그 문서에 찍힌 인영(아담)을 보니 그 인장(성자 예수)을 찍은 발신자가 성부 하나님이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인영이었다. 비록 보석을 깎아 만든 인장과 점토덩어리인 봉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인장의 인영 또는 인문이 봉니에 찍힐 때 그 봉니는 더 이상 단순한 점토덩어리가 아닌, 그 주인의 의도와 권위를 반영하는 증표가 되듯, 아담은 흠을 빚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영, 인문을 찍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이를 가리켜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이 때 “사람(hā ‘ādām)”이라 번역한 ‘그 아담(the adam)’은 “남자와 여자” 둘 다를 가리키

기에, 이 둘이 같이 예수의 “모형”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는 아담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

2. 하나님의 약속

전문을 기록하고 봉인해 공문서를 발송하지만 수신자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수령하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의 침공에 앞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담아 유다 백성에게 전한 경우와 같다(렘36:4-

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잡아아가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별을 받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었다(렘25:11-12).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뱀을 두고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3:15).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뱀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이 유다 백성의 포로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발신자에게 있고 그 인장 또한 발신자의 손에 들려 있는 한 전달된 내용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만유의 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가 곧 말씀의 근원이시고 그 인장이 하나님께 있기에 아무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고 그 기록된 뜻을 거스릴 수 없다.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를 회개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성취되어 주전 516년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지듯,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 죄에 포로된 삶을 사는 인간을 회개하게 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창세기 3:15에 밝히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를 유다 지파 가운데 두시겠다 말씀하셨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창 49:10).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출생할 다윗을 통해 구체적 “모형”이 되고, 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마2:2).

다윗의 때로부터 천 년이 지나 동방의 박사들이 던진 질문은 인영이 가리키는 인장의 실체이신 그 분이 어디 탄생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 그 분이 곧 그 실체이시며,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근원이심을 알게 하였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세우신 왕을 우리는 구주로 알게 되었다.

spark4@gordonconwell.edu



유다 왕국 시대 인장(왼쪽) 및 봉니(오른쪽: '유다왕 히스기야')

8).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는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에 의해 칼로 베어지고 화로 불에 던져져 태워지고 말았다(23절). 그리하지 말라고 몇몇 신하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듣지 아니하였더라”(25절), 심지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다. 다행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26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들어 할 왕에 의해 찢겨 버려 버려지고, 그 결과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갈기 갈기 찢겨 그 성과 여호와의 성전이 불 살라진 채 약속의 땅을 떠나 포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본다 -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을 떠나 죄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떠

생활로부터 회복으로 이어지듯, 뱀의 심판은 인간의 죄에 포로된 삶으로부터의 구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유다가 포로로 떠나기 전에 주어졌고 그들과 함께 했듯이 구속의 약속 또한 에덴을 떠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으니,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의 에덴에서 시작되어 늘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이다.

3.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을 뿐 아니라 성취되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찢어 버린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다(렘36:28).

아무리 수신자가 봉니를 뜯어 없애고 두루마리를 찢어



시니어 목회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다음세대 영성교육의 전략, 예수님 닮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다음세대가 자기 존재를 기뻐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마태복음 22장 39절)은 진정한 영성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영성의 실체는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영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린 자녀가 일찍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양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살펴봄으로써 다음세대 영성교육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영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첫째, 분명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분입니다.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이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사명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둘째, 조화로운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성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신 분별력과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공감인성 능력으로, 이성과 감정, 신앙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넷째, 배려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다섯째, 경청하며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한 사람, 버림받은 환자,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 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똑같이 존중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날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소중히 대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영성교육은 한 마디로 다음세대를 이룬 ‘작은 예수’로 키우는 성품교육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성교육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성품교육의 분명한 목표를 되새기는 12월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세대 성품교육과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h3>갈보라성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h3>다민족교회</h3>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영양분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h3>몽고메리교회</h3>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p>	<h3>벅스카운티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p>	<h3>벨렐교회</h3>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장영) 오후 1:45 다문화: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h3>보스톤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h3>새생명안인교회</h3>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배: 오후 7:00(목) 새벽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h3>알칸사제사들교회</h3>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73) 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h3>앵커리지열린문교회</h3>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h3>영생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h3>킬린은누리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3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h3>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3>타코마 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636-6675, www.taccora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2차대전... 니엘 폴링이라는 사람이 미 해군 장교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

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탔던 군함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구명대가 모자라 우선 장교들에게 구명대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폴링은 자기 옆에서 구명대를 받지 못하고 죽을 앞에서 떨고 있는 한 사병을 바라보고 자기의 구명대를 벗어서 그 사병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니엘 폴링을 바라보던 사병은 훗날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구명대를 나에게 주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곁에 있는 사병에게 구명대를 입혀준 다니엘 폴링은 바로 십자가로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의

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핑계로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귀에 실어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라고 결론을 맺으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깨비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올해 2월 24일에 시작되어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

들고 러시아의 푸틴은 이제 추운 겨울을 맞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도록 발전소와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와 마켓에 미사일을 집중하여 포격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회를 가려고 나서니 온몸에 추위가 느껴지는데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발전소가 공격을 당해 단전되어 추위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립니다. 앞으로 혹한의 추위가 밀려올 텐데 이 추운 겨울을 저들이 어떻게 버틸 것인지 생각하면 눈물이 고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9개월 동안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2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고 수많은 부상자가 집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가올 혹한의 눈보라를 앞두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 시대의 강

도 만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35-40의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하였사옵니까 하리니 그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songpkak@hotmail.com



성서유니온 미주지역위원회 서부지부 박일룡 목사(사진 가운데) 위원장 선임됐다

성서유니온 미주지역위원회

서부지부 신임 위원장 박일룡 목사

성서유니온 미주지역위원회 서부지부(위원장 민종기 목사, 이하 성서유니온)는 신임 위원장에 박일룡 목사(로템장로교회 담임)를 선임했다. 민종기 목사, 박일룡 목사, 송병주 목사가 12일(월) 정오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아오백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임하는 민종기 목사가 신임 박일룡 목사에게 성서유니온 서류를 전달했다. 성서유니온 서부지부 위원장 이취임식은 따로 갖지 않는다. 이임하는 민종기 목사는 "성서유니온 오현국 총무가 8년

전 미주에서 성서유니온 사역을 시작했다"며 "두 달에 한번 성경산책 모임을 가졌으며 1년에 한번 LTC모임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 목사는 "박일룡 목사가 미서부지부 위원장으로 사역을 하게 된 만큼 성서유니온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일룡 목사는 "그동안 펼쳐왔던 사역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팬데믹 이후 교회들의 사역의 형태가 변화되었는데 이에 발맞춰 한국 성서유니온과 협력하여 말씀사역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서유니온 사역에 강사로 동참해 온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담임)는 "성서유니온 사역은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두고 실시해오고 있다"며 "저희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묵상하는 모임도 있다. 이는 말씀묵상훈련이 자녀들까지 이어가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 말했다.

성서유니온은 매일성경 말씀 세미나를 두 달에 한번 총현선교회와 로템장로교회에서 열고 있으며 년중 행사로는 책 주제를 정하여 연구해서 발표하는 LCT 세미나를 열었다. LCT세미나는 계시록, 로마서, 히브리서를 다루었다. 강사로는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민종기 목사(총현선교회 담임), 박일룡 목사(로템장로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김철원 목사, 신웅길 목사(풀러신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종기 목사는 "신학적으로 저명한 학자와 목회자들이 성서유니온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성서유니온 사역에 좋은 전공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 프로그램 CCNE 인가취득에 대하여 신선목 부총장이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 프로그램 CCNE 인가취득

"각종 프로그램의 품질과 통합보장, 지속적인 성장 위해 지원"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RN to BSN) 프로그램이 CCNE(The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인가를 취득했다. RN to BSN은 간호사를 위한 학사학위 프로그램으로서 2019년 간호학과 개설 이래 3기에 걸쳐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동안 운영해온 본교 간호학과와 우수한 교육 수준과 졸업생들의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정식으로 CCNE 인

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CCNE는 미국 교육부 장관(national accreditation agency)이 인정하는 공식 인가기관으로서 간호학 학사학위, 대학원, 레지던트, 펠로쉽 프로그램의 품질과 통합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는 CCNE 인가를 받기 위해 학과장인 이영주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1년여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CCNE 인가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 학교 내외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행사를 가졌다. 축하 모임에는 OKNA(Overseas Korean Nurse Association: 세계한인간호사협회) 모니카 권 이사장, KANASC(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사라 고 부회장, 3C Medical Clinic 김영욱 원장 등 한인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2부 행사에서는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3기생이 주관한 논문 발표도 있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RN to BSN 과정을 공부할 2023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마감은 2023년 1월6일이며, 문의는 admissions@wmu.edu 혹은 (213) 388-1000 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후원 감사의 밤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나눔하우스 후원 감사의 밤

"나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생명"

데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 후원 감사의 밤이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다. 데나눔하우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언어도 문화도 모두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을 그러나 꿈꾸던 것과 행복 대신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거리를 전전하게 된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위해 나눔의 집이 세워졌다. 낯선 타국에서 겪게 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건강 문제, 가정불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노숙자가 된 이들에게 삶의 필요를 제공해 주며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자유되고 회복되며 자립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진숙 국장(AM1660), 최락경 국장(K Radio) 사회로 열린 후원 감사의 밤은 신애라 집사,

최유영 아나운서 영상메세지, 조상숙 목사(캐네티컷 전도치유 교회)가 기도했으며 양은실 간사(스태프), 이수일 박사(뉴라이프 정시건강 클리닉)가 데나눔하우스를 소개했다. 축사는 김기안 목사(뉴저지 세빛교회), 뉴욕총영사관, Zoom으로 Ron Kim(뉴욕주 하원의원), 영상으로 Chales Yoon(뉴욕한인회 회장), Grace Meng(연방 하원의원), 박용규 교수(총신대 명예교수)가 담당했다. 이어 Henry Lopez(Founder of Anchor House)이 격려사가 있었다. Ron Kim의원의 임지윤 보좌관을 통해 감사패를 박성원 목사에게 전달했다. 김기안 목사(뉴저지 세빛교회)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 하셨다. 그리고 가난하고 할벗은 자 병든 자와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였다"며 "나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될 것이니 사랑 나눔에 동참할것"을 부탁했다.

박성규 목사(총신대 명예교수)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이 땅에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민교회, 이민사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Henry Lopez(Founder of Anchor House)는 "한때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감옥에도 갔다. 그는 나눔의 하우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학교 졸업장이 없었던 그에게 지금은 박사 졸업장까지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광고 박성원 목사(데나눔하우스 대표), 데나눔하우스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고 3절은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했으며 방직자 목사(상임교문)의 축도로 마쳤다. 만찬을 위한 이준성 목사(뉴욕교회협의회 회장)의 기도가 있었고 교협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

(홍현숙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흡인성 폐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들도 많이 늘고 있다. 전립선암이나 치매, 파킨슨씨 질환과 같이 노인 인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도 있고 음

후 호흡곤란이 와서 찾아왔다 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잘 조절했고 5년 전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 무릎의 관절 성형수술을 했

료를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해 튜브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흡인성 폐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삼킨 음식이 폐로 넘어갈 수 있고 환자가 누워 있는 중에 위속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폐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는 인체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기침과 같은 방어기전에 의해서 하루 기도까지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약해져 연하장애(삼키지 못하는 것)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이 기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는 특히 80-90세 이상의

근력 약해진 노인층에서 흔해

식을 삼키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처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은퇴한 80세 초반의 김 모씨는 일주일 전부터 숨이 차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더욱 숨이 찼고 기침도 자주 났다. 미열이 났고 몸살증상도 있었다. 김 씨는 평소엔 식사 중에 기침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 기침을 한 다음에는 더욱 숨이 찼다. 밥이나 고기를 먹을 때는 기침을 하지 않았으나 물을 마실 때는 기침을 했다. 병원에 온 날도 심하게 기침을 한

다. 당뇨 외에 다른 큰 질병은 없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학적 검진 상 혈압은 정상, 맥박은 분당 95로 조금 빨랐다. 체온은 37.9도로 조금 높았고 청진상 우측 폐 하엽에서 이상음이 들렸다. 또 양쪽 폐에서 천명도 들렸다. 폐 엑스선 검사상 우측 하엽에 침윤이 보였다. 김 씨는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단순 폐렴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정밀 검사 후에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치

노인층에서 흔하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을 때 세균감염 없이 위산이나 이물질만 폐로 흡입되었을 때는 회복될 수 있지만 구강 내 세균이 대량으로 기도로 넘어갈 때는 목숨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인성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바륨(조영제의 일종)을 먹고 엑스선 사진을 찍을 때 구강 내의 음식이 대량으로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발견될 때는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흡인성 폐렴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문의:213-383-9388

동부교계 게시판

몽고메리교회 부사역자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복음사역을 감당할 부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 : 본 교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사역종류 : 풀타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설교동영상 2부 교회주소 :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지원처 : kapcmpc@gmail.com (최해근 목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 교회 610-222-0691, 담임목사 267-471-7777

뉴욕어린양교회 EM, YOUTH 사역자 청빙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운선 목사)에서 EM, YOUTH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EM, 유스 사역에 부르심과 열정이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 가능하신 분 (영어로 설교, 소통 및 미팅이 가능한 자), 정규신학교 또는 기독교 교육 관련 학위(학부 또는 대학원) 소지자이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고백 및 사역에 대한 부르심)
▲문의 및 서류접수: webmaster@nylfc.org

뉴저지동산교회 교육부 파트/하프 타임 사역자 청빙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교육부 담당 파트/하프 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제출서류: 이력서
▲문의 및 서류접수: 201-229-1561, info@dongsanchurch.org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 같이 경배하자!

(2면에서 계속)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의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상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로 되고, 내 삶을 부정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면, 거기서 잠시 벗어나라. 친구 및 가족과 오프라인에서 정직하게 또 나를 다 드러내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공동체와 함께 성탄절을 보내라.

신자들이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부서진 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이다. 구유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상처받고 보내는 성탄절도 그리 문제가 될 게 없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상처가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키는 도구가 되도록 하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며 큰 슬픔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찾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슬픈 날조차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함께 기뻐하자.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이 하프 연주 공연을 하고 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선교를 위한 제3회 정기연주회

5개 선교지에 수익금 전달, 성탄을 맞아 찬양, 명곡,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은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지난해와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선교를 위한 연주회로 열렸으며, 수익금으로 5개 선교지(인도,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러시아)에 선교비를 전달했다. 연주단은 2006년 창단되어 교계와 교회의 각종행사에서 찬양을 해 왔다.

연주회는 인도 이만호 목사(단목), 개회기도 김원기 목사(교협 중경회장단 회장), 인사 이진아 목사(회장)와 박영희

권사(단장), 축사 이준성 목사(교협 회장)로 문을 열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은 이진아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와 복음성이 메들리, 동요와 명곡 메들리,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등을 공연했으며, 울동까지 하여 박수를 받았다. 게스트로는 박태규 목사(뉴욕새사람교회)의 하모니카 연주, 테니 이신재와 소프라노 임예지가 듀엣으로 찬양했다. 전광성 목사(하크네시야교회)가 선교헌금기도를 했으며, 허윤준 목사(지역교회부흥선교회 회장)의 폐회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새사람교회 설립 21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집사 3인, 중국어권 전도사 1인 임직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는 12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설립 21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임직자는 집사에 Marilyn Lopez, Kaye Valerie Sy Fortson, Maria Corazon Wong 등 3명과 중국어 회중 전도사 Chuandeng Yang이 임직했다. 이종원 목사는 "지상대명령(마태복음28장 18-20절)"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째,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둘째, 세례를 주라, 셋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설교했다. 이종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새사람교회는 현재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예배가 있으며 중국어 회중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의 예배처를 교회 자체 성전으로 구입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제49회기 임시총회를 마치고 신·구임원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뉴욕교협 제49회기 임시총회

신임 회장 이준성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9회기 임시총회가 12월 7일(수) 10시 30분에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에서 열고 신임 회장에 이준성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이준성 목사는 "뉴욕교협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49회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협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로 가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교회들이 힘있게 서로 연합하는 교협이 되기를 약속드리다"고 말했다.

임원선거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준성 목사(뉴욕양리장로교회)를 총 133명이 투표하여 찬성 72표, 반대 61표가 나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이만호 목사가 진행했고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등록 총대는 임시총회 참석시 번호표가 있는 이름표

를 부착하도록 했다. 투표 결과는 김희복 목사가 발표했다.

이날 예배는 이기용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전광성 목사(부활절준비위원장), 성경봉독 조동현 장로(이사장), 설교 문석호 목사(중경회장), 축도 황경일 목사(중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신앙 공동체의 과제'(요한 1서 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연결해 준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생명의 말씀이다. 모든 일은 가변적이지만 불변적이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에 관한 진술을 잊지 않는 모든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현숙 기자)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가 성탄축하찬양을 드리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22 성탄 축하 찬양제

"거기 빛이 있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거기 빛이 있었고"를 주제로 12월 11일(주일) 오후 4시에 2022 성탄 축하 찬양제가 열렸다. 1부 예배는 이정훈 장로 사회, 최미희 권사 기도 후 김성국 목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요한복음 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눈 먼 자 소경 바디 메오를 연가하며 "눈 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찬양은 이번 성탄 축하 찬양제는 강혜영 집사의 지휘 가운데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세대와 오케스트라가 찬양과 나레이션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 됐다. 연

합찬양대원들이 "성탄으로의 초대", "빛의 축제", "모든 백성들 기뻐하라", "가장 아름다운 이름(중고등부 찬양대)", "나의 소망", "천사의 노래", "푸르른 달빛 비칠 때", "기쁨의 성탄 노래" 등의 곡들을 찬양한 후 김성국 목사가 광고를 통해 이번 성탄 축하 찬양제를 위해 그동안 수고한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성탄 축하와 함께 "찬양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온 회중이 다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한 후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설립 21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1회기 이·취임식

"군사 쿠데타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쿠데타"

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제51회기 이·취임식을 12월 12일(월)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에서 열었다.

"함께 세워가는 목사회"(엡 2:22)를 표어로 출발한 51회기 회장 김홍성 목사(늘기쁜교회)는 "뉴욕지구한인목사회 목표는 목사를 상호 간에 믿음의 진교와 사랑의 봉사, 진리 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교계의 상황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때인 줄 믿는다. 특별히 오늘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는 역사의 한 날이다. 오늘 우리 뉴욕 교계에 이런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한 사람들(행 8:1-8)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와 신뢰성이다. 지금은 교회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지구 목사회 회장이 된다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이다. 목사회에 계신 분들이 회장이 달밤에 우는 날도 생각해 보면서 국뱀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어깨라도 두들겨주기를 바란다"며 "초대교회가 어렵고 슬프고 고난의 현실이었지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김홍성 목사가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이 되니 뉴욕 교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 이 도시에 기쁨이 가득하리라고 평가받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박희근 목사(총무) 사회로 시무기도 황동의 목사(중경회장) 이임사 김명옥 목사(이임회장) 목사회 기인제가 있었으며 취임인사 김홍성 목사(신임회장), 임원 및 실행위원 소개, 임명장과 위촉장 수여했고 직전회장 김명옥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축가 뉴저지목사합창단, 축사 방지각 목사(중경회장), 정병화 대사(뉴욕총영사), 김동석 대표(시민참여센터), 변종덕 이사장(21세기희망재단), 격려사 윤세용 목사(KCBN 이사장), 광고 안재현 목사(서기), 안장의 목사(중경회장)의 폐회 및 만찬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1부 예배는 정관호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대표기도 주효식 목사(감사) 성경봉독 안경순 목사(부총무), 찬양 늘기쁜교회 찬양대, 말씀 김정호 목사(후리성제일교회) 헌금기도 유상용 목사(회계), 헌금특송 윤태석 집사, 축도 김용걸 신부(중경회장)로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예수로 행복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1회기 이·취임식을 마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 제12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

3부에 걸쳐 총 22곡을 연주, 수익금은 미주기아대책본부에 전달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12월 11일(주일) 오후 3시에 제12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열었다. 3시간여 동안 메시아 전곡 - 1부 예언과 탄생, 2부 예수의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원한 탄생 등 총 22곡을 공연했다. 올해 공연 수익금은 아이티 난민들을 섬기는 'Heart Care Global' 그리고 전쟁으로 절망을 만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담요를 보내는 '미주기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음악감독 박병국 장로의 지휘로 교회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메조 소프라노 박영경, 테너 블레이크 프리드먼, 소프라노 레이첼 블라우스타인, 바리톤 김수찬 등 솔리스트들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본 공연은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로 마지막을 장식하며 성탄의 분위기를 살렸다. 공연을 시작하며 지역 에드워드 노빅 시장이 격려 인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열 목사는 담임목사 인사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피곤한 인생들을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찬양하는 메시아를 통해 모든 무거운 짐들, 삶의 외로움, 인생의 숙제들을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고, 헨델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메시아 연주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선포했다.
(김재상 기자)

세기언, 2022 총회 및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연임키로

최우수상 이윤진, 우수상 한익승, 장려상 4명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세기언, 회장 이영선 목사) 2022 정기총회 및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2월 8일(목) 오전 10:30 미주북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 기도,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설교, 서종천 목사(크리스찬투데이 발행인) 축도로 진행됐다. 심상은 목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사 52: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심목사는 "뉴스를 전하는 신문과 방송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귀중한 도구"라며 "특히 크리스천 미디어는 다른 어떤 언론보다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며 세상의 타락 앞에, 성경적 진리 앞에 가장 앞서는 막중한 위치에 서있다. 진리와 공정이란 바탕 위에 뉴스를 전하고 건전한 비판 속에 사회에 알려진다면 수많은



회장으로 연임된 이영선 목사(위 왼쪽부터), 설교하는 심상은 OC교회회장

사람들이 안심하고 뉴스를 읽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 언론은 정론 집필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명 앞에 정직하게 충성해야 한다"고 격려하며 사명감을 재차 일깨워 주었다.

이어 2부 시상식은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 사회로 시작돼 이성자 전도사(미주 크리스천신문 LA 지사장)가 본 독후감 공모전 과정을 설명했다. 이 전도사는 "올해 6권의 추천도서 중 응모자들은 '매다

들다 걷다(저자 이여령)'가 33%, '한 달란트(저자 박성현)' 27%를 선택했고 최종 수상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백승철 목사(에피포도 예술인협회 회장)는 심사평을 통해 "매년 세기언을 통해 배출되는 수상자들 가운데 열심히 글을 쓰셔서 문인으로 활동하거나 동인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다른 여러 문예 기관의 수준 못지않게 좋은 글들이 응모되고 있다. 본 상은 시시한 상이 아니다 수상하시는 분들은 자랑스러운 상이라고 믿고 계속 글 쓰는 일에 정진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8년째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독후감 시상식에서는 브라질을 비롯하여 뉴저지, 보스턴, 멕시코에서 수상자가 나왔으나 대부분 거리가 참 멀어서 최우수상 수상자 이윤진 씨(ANC온누리교회)와 장려상을 받은 문지혜 씨(은혜한인교회)만 시상식에 참석했다. 참석치 못한 수상자들은 우수상 한익승 집사(뉴저지파라무스침례교회), 장려상 김진해 장로(브라질), 손소영 집사(보스턴은혜장로교회), 실비아리 전도사(멕시코 BMM선교회)이다.

3부로 진행된 세기언 총회는 김창호목사의 기도로 시작 돼 윤우경(서기) 회원점명, 서인실(회계) 재정보고, 임원선출이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22대 이영선 회장의 유임을 결의하고 부회장 조명환, 이성자, 회계 서인실 서기 윤우경 모두 유임키로 하고 자세한 사업계획은 임원회로 위임하고 폐회했다.

세기언은 1988년 미주한인기독언론협회(초대회장 이정근 목사)로 창립되어 2010년 이름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로 바꾸고 뉴욕, 시카고 등 미 전역과 브라질(남미복음신문), 호주(크리스천 리뷰)등지의 기독언론사가 합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인 기독교신문과 방송의 연합체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교역자 청빙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영어 목회, 교육부 총괄 및 부서교역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 졸업 혹은 재학중인 자로 사역에 열정이 있으며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본인사진 포함), 신앙간증서, 추천서 2매, 최근설교영상이다.

▲ 문의: office@youngnak.com

벤엘교회 임직예배

벤엘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2023년 신임임직자들의 예배가 18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이날 예배는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 문의: (949)854-4010

인랜드교회 은퇴식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18일(주일) 2부예배(오전 9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909)622-2324

충현선교회 신년부흥회

충현선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2023년 신년부흥회가 1월5일(목)부터 8일(주일)까지 '말기신 소명 이루어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 문의: (818)549.9191

한길교회 은퇴식

한길교회는 시무장로, 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시무권사 은퇴식을 18일(주일) 2부예배시간(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323)735-0200



'캔들라이트 앤 캐럴스' 공연에서 한인회중 트리니티 코어이거 찬양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제78회 '캔들라이트 앤 캐럴스' 공연 개최

"미주교계와 한인사회에 성탄의 의미와 참기쁨 나눠"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3개 회중의 연합 교회인 파사데나장로교회(한인 회중 담임 최진영 목사)는 지난 3일 패서디나와 LA 지역사회를 위한 다인종 지역 축제인 제78회 '캔들라이트 앤 캐럴스'(Candlelight & Carols) 공연을 개최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기원하며 희망의 캔들라이트를 주제로 공연해 큰 성황을 이뤘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5개 합창단의 성가 공연과 함께 남가주에서 손꼽힐 만큼 큰 규모와 울림을 자랑하는 파이프오르간과 핸드벨 코어어의 연주를 선보여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인 회중의 트리니티 코어이거 지휘자인 김중숙 소프라노는 "한국어와 영어로 부르게 된 다양한 고전, 현대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미주 교계와 한인사회에 성탄의 의미와 참기쁨을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시전 송년 작은 시 낭송회가 헤일리 카페에서 열렸다

문화사역 '시전' 송년 작은 시 낭송회

문화사역 '시전'의 송년 작은 시 낭송회가 지난 12월 3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헤일리 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시 낭송회에선 조미나 동인의 '위로', 김선아 동인의 '약자의 회복', 이한나 동인의 '사랑의 힘', 정한나 동인의 '오늘따라' 김한필 동인의 '전도여행'과 최명희 시인의 '이 가을에', 이영숙 시인의 '아버지' 이애미 시인의 '나무껍질'이 낭송됐고 이인미 시전 대표가 '빛의 신부'란 헌시를 낭송했다.

이인미 시전 대표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수평적 인본주의 시가 난무하는 속에서 수직적 신본주의 시편과 성문서를 받들며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수평적 문학, 그 시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언어의 유희 측면을 조심하므로 언어로 세우는 이상도 경계하고, 시의 영광 사울의 기념비도 거절하며 오직 기준도 주님, 인도역사도 주님, 시의 영원성과 생명성을 보장해 주시는 그 분을 신뢰하므로 부족한 시의 용알이지만 우리의 언어의 예술드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시드선교회 2022 성탄가족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현인목사

시드선교회 2022 성탄 가족 모임 성료

"주님을 위해 인생을 태울수 있는 선교사 되자"

시드선교회(국제대표 박신욱 목사) 2022 성탄가족모임이 10월 12시 남가주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시드소속 선교사, 기도후원자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가운데 열렸다.

가족 모임은 성탄의 즐거움이 물씬 느껴지도록 아름답게 꾸며진 친교실에서 남가주든한교회가 마련한 오찬을 나누면서 시작했다.

이어 분담으로 자리를 옮겨 들려진 성탄감사예배는 임태호 선교사(시드 미주대표)의 사회, 김태은 선교사 기도, 김현인 목사 설교, 임태호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현인 목사는 "바울은 확신한 사람" (행 27:27-37)의 제목으로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 이 계절을 지나며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다'고 확신하며 전하는 자가 되자"고 말하며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외쳤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고, 의심 없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시드에 속한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을 갖고 많은 관계자들의 영상 인사와

격려, 위로가 이어졌다.

박신욱 목사(시드선교회 국제대표)는 "성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이다. 2023년 새해를 바라보고 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서로 사랑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사장 양춘호 목사는 "선교하기 어려운 시기다. 이렇듯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은 이전 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한자리에 모인 시드 선교회 관계자 모은 이들은 퀴즈대회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맘껏 누리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시드선교회 기도후원 모임은 2023년부터는 매월 셋째 토요일 남가주든한교회(1645 Beverly Blvd, LA CA 90026)에서 갖게 된다.

〈이성자 기자〉



덴버지역 교역자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 덴버중앙일보)

덴버지역 교역자회 정기총회 열어

신임회장 윤우식 목사, 부회장 이형만 목사

덴버지역 교역자회(회장 유지훈 목사)는 2022년을 마감하는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장로교회(담임 윤우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본 회의는 제 1부 개회, 2부 총회로 진행됐다. 1부 개회예배는 유지훈 목사의 사회로 윤우식 목사가 설교했다. 윤우식 목사는 '나 때문에'(창세기 3장17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에 이르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목사이니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 교회가, 지역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오 목사의 기도와 임동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신규회원으로 벤엘교회의 신현수 목사를 소개했으며, 회의록 통과, 임원 및 각부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3년에 덴버지역 교역자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는데, 이날 참석한 목

회자들은 만장일치로 윤우식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새로운 임원으로 △ 부회장 한인 장로교회의 이형만 목사, △총무 임마누엘 연합 감리교회의 전병욱 목사, △회계 풍성한 교회의 이두화 목사 △ 선교부 부장 믿음장로교회의 김병수 목사, △ 교육부 부장에는 한인기독교회의 송병일 목사, △ 친교부 부장에는 덴버제일감리교회의 손창달 목사, △ 2세 교육부 부장 참빛교회의 유지훈 목사, △ 음악부 부장 벤엘교회의 신현수 목사가 세워졌다. 이어 각 부 보고로 이어졌다. 신임 교역자회장으로 선출된 윤우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 한 해 소명을 가지고 잘 섬기도록 하겠다. 회장이라는 위치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다. 모쪼록 덴버지역교역자회 목사님들과 잘 협력하여, 교회와 함께 번성하고 서로 돕는 콜로라도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마이킷즈월드 후원음악회 출연자들

마이킷즈월드 후원음악회

마이킷즈월드 후원음악회가 10일(토) 오후 6시 좋은마음교회(담임 신원규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신원규 목사 기도로 시작된 이날 후원음악회는 영엔젤스 콰이어(지휘 최원현), 소프라노 김중숙, 이지은, 테너 오위영, 최원현, 바리톤 권상욱이 출연해 격조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마이킷즈월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지구촌 고아들을 섬기는 선교단체이다. 신원규 목사는 "남가주 정상급의 성악가들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오늘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아 아름다운 축제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송년회 “차금법·동성애취어촉제 반대”

목회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340여 명 참석

전국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연)가 13일 부산 해운대 그린 나래호텔에서 '2022 송년회 및 전국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전기총연은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서울시청 앞 대규모 기도회를 계기로 출범한 단체다. 행사에는 전국의 목회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34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자리

했다. 설교를 맡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장 유만석(수원명성교회) 목사는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자”며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쿼어촉제반대, 북한 인권 등을 두고 함께 기도했다. 전기총연 이사장 임영문(평화교회) 목사는 환영사에서 “처음엔 7명이 이 자리에서 봉헌했었다”며 “많은 분이 함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축사에서 “기독교계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큰 지지 세력 중 하나였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전기총연의 노력은 놀라웠다”며 “끝까지 함께해 달라. 잘못된 게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주셔서 여러분의 판단과 기도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NH농협은행, 사랑의 쌀 300kg 경로당 노인에 전달

대한노인회 치매예방국민캠페인 및 국민댄조(댄스와 체조 합성어) 전국순회공연

NH농협은행 중앙사업본부(본부장 정종관)는 13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김주용 목사)에서 쌀 300kg을 대한노인회 종로지회(지회장 정용정)에 전달했다. 대한노인회 종로지회는 경로당 회원 400여명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종로구청 관계자와 시의원, 구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주용 연동교회

목사는 “성경에 효 사상이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행사 장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치매예방본부는 ‘치매예방국민 캠페인 및 국민댄조(댄스와 체조 합성어) 전국 순회공연’을 갖고 있다. 또 정신 건강을 위해 신문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치1번지 종로에 어르신이 많다. 모든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준비위원장 이병오(전 농협 지점장) 목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건강문화 도입의 첫 단계로 치매 예방 국민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치매예방 단조를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선교 비전2030 1년 성적표 ‘저조’ ...

지역별 민·군 연합활동 등으로 돌파

군선교 미래 전략인 ‘비전 2030’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거점교회 연결을 통한 군인들의 지속가능한 복음화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민간 교회들의 무관심과 전역할 군인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할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지역별 민·군 연합 활동 강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군선교 비전2030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세례를 받은 군인들의 수는 약 9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거점교회로 파

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군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군선교 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교회들이 군선교를 다음세대 복음화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의 교회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2030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거점교회 확보를 위한 지역별 민·군 연합 활동이 강화된다. 민간 선교단체 및 교회, 현지 군인교회 등이 힘을 합쳐 거점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장교 전역자들의 모임인 화랑선교회 등 파송에 도움이 되는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의병을 요구한 군종목사는 “파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기에 월1회 파송자 자료를 최신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민한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별 거점교회 컨퍼런스 및 파송분과원 정책회의 등도 정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단의 다음세대 포섭 위한 배후 전략 치밀 경계해야”

수능이 끝난 요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을 고3 수험생들은 이단·사이버 종교 단체에 있어 주요 포교 대상 중 하나다. 대학 입학이 무렵은 고3 수험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단들의 집요한 포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국내 대학생의 70%가 이단의 접촉과 포교를 경험했다는 한 대학캠퍼스 선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이 시기 고3 수험생들과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이단 예방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

‘오픈 채팅방’을 미혹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한다. 양 목사는 “최근에는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개설된 지역 일상 나누기 모임이나 독서모임 등에 참여했다가 이단과 연결된 청년들의 사례도 많이 본다”며 “이런 통로로 일단 모임이 진행되면 이단들은 초반은 포교 대상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다양한 상황을 만들며 접촉하려 한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레 이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의 경우 ‘대학 생활 더 잘하는 법’, ‘리포트 잘 쓰는 법’, ‘나에게 맞는 학교 동아리 선택하기’, ‘전공 적성 심리 검사’ 등 새내기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며 이단들의 무리로 이끌기도 한다. 양 목사는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내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며 다가오는 단체들의 경우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특정 인문학 강의를 다녀왔다는 지, 무료로 성격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든 추이를 근두세우고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독일처럼 갑자기 북한의 문 열릴 때 대비...”

교단·교회·선교단체 통합적 계획 서둘러야

“독일처럼 갑자기 북한의 문이 열리면 혼란과 경쟁적 소모전이 일어나 북한 복음화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단·교회·선교 단체들이 각자의 소명과 은사, 자원에 따라 통합적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북한교회 재건위원장을 맡았던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의 조언이다. 10여년 전 한기총 대표회장 시절 북한교회재건운동을 추진했던 박종순 총신교회 원로목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통일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회들과 교단, 선교 단체가 제각각 북에 올라가 각자의

깃발을 꽂아서 안 되고 연합해야 한다”면서 “통일 이후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실에서 열린 ‘북한교회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국교회 원탁회의 1차 준비모임(사진)’에서 제시됐다. KWMA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주관으로 열린 행사엔

북한선교 관련 교계 원로 인사들과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선교전략협의회, TWR북방선교방송,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등 북한선교 ‘싱크탱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통일 후 북한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공동 원칙과 주요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1990년대

설정한 북한교회재건운동 3원칙(연합, 단일 교단, 독립과 자립)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3040 크리스천 절반 “10년 뒤 교회 잘 나가지 않을 것”

실천신대-한국교회탐구센터 설문

3040세대 기독교인 절반이 10년 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한국 교회를 견인할 ‘브리지 세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익·이하 실천신대)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는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3040세대 신앙생활과 의식 조사 결과 세미나를 열고 응답자 49.7%가 10년 후 신앙 유지 예상에 대한 질문에서 “신앙은 유지하더라도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3040세대 절반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 신앙단계 조사에서 1단계의 약한 신앙을 가진 이의 비중이 42.6%였다. 2단계 신앙을 가진 비율은 28.6%였다. 3040세대는 신앙 생활을 하는 1순위 이유로 ‘마음의 평안’(33.9%)을 꼽았다. ‘가족들의 신앙 생활’(12.7%), ‘습관적으로’(9.6%) ‘삶의 어려움 극복’(7.0%)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6.9%)가 그 뒤를 이었다.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의 경우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중하층에 비해 40% 포인트 이상 높았고, 미래 생활에 희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중하층에 비해 30% 포인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상승, 기독교는 하강?

TGC, A.S. 아브라임 교수, 종교 통계 결과의 허실 분석 통해 이슬람 역시 하강세라고 밝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말을 어디서든 한두 번 들어 보았을 것이다. 현재 추세면 2050년이면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인구와 거의 같아질 것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예측한다. 누군가에게 이 통계가 주는 의미는 이슬람이 매년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고 따라서 신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석 앞에서 낙담하는 그리스도인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던 사람이 신앙을 버린 통계와 비교

할 때 더 실망스럽다. 이처럼 기독교가 쇠퇴하는 사이에 이슬람이 그 틈을 타고 상승장구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통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종해서 증가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통계에는 신앙을 떠나 는 무슬림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Is Islam the World's Fastest-Growing Religion?)

현실 이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종자가 아니라 무슬림 가정의 높은 출생률 때문이다. 무슬림 남성은 최대 네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많은 자녀로 이어진다. 또한 많은 무슬림 집단에서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자가 집에만 있는 가정환경은 자연스럽게 평균적인 비무슬림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의 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슬람 사회가 여성을 주로 출산 기계(child bearers) 정도로 볼 정도로 그들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부 무슬림이 있을 정도이다. 전통적인 무슬림에게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을 무함마드의 움마(공동체) 확장이라는 사명을 성취하는, 무함마드를 향한 헌신의 표시가 된다.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무슬림으로 간주되고 자동으로 이슬람의 전체 숫자에 추가된다.

출생으로 신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이슬람은 배교자를 사형시킨다. 따라서 이슬람을 포기하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다.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목상 "무슬림"으로 남는 배교자도 있다.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는 말 앞에서 실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런 현실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 증가하는 무슬림의 수가 반드시 이슬람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계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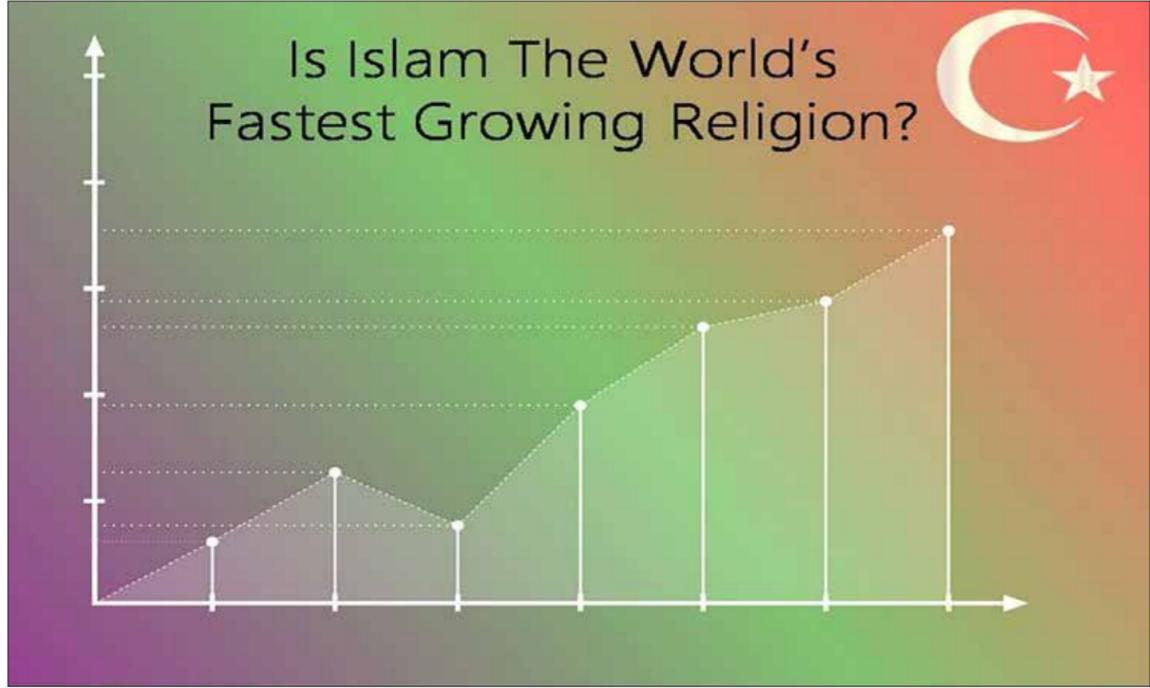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 무슬림들 사이에 이란의 무슬림을 살펴보자. 2020년 9월, 이란의 세속적 변화를 조사한 학술연구 결과가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게재되었다. 수많은 이란인이 이슬람을 버리고 있다. 이란의

감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의 무슬림의 모습을 강조했다. 기사는 불신앙(unbelief)의 위기에 처한 젊은 무슬림이 이슬람을

수행한 연구를 보도했다. 그 연구는 아랍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종교를 버리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아랍은 말 그대로 이슬람의 심장부이다. 대략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자신을 "비

수행한 연구를 보도했다. 그 연구는 아랍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종교를 버리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아랍은 말 그대로 이슬람의 심장부이다. 대략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자신을 "비



다. 그러니까 신도 수의 순 증가지(net gain)는 사실상 0인 셈이다. 미국에서 자란 성인 무슬림 중 거의 4분의 1이 자신을 더 이상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연구자는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슬람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놀리고 싶어서가 아니다. 단지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공식 인구 조사에 따르면 무려 인구의 99.5퍼센트가 무슬림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 고작 40퍼센트에 불과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은 더 이상 무슬림이 다수인 이슬람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 전 세계 무슬림은 어떻게? 2019년 9월 텔레그래프 온라인(The Telegraph Online)에 실린 "젊은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슬람의 근본적인 주장에 대해

버리는 물결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심지어 수단, 이란, 파키스탄 같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배교 금지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럼 아랍 세계의 무슬림은 어떻게? 2019년 6월 24일, 영국 뉴스 매체 가디언(The Guardian)은 프린스턴 대학에 기반을 둔 한 리서치 그룹이

종교적"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11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증가했다. 2015년 4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의 기사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아랍 세계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특히 이슬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5년 사이에 고작 7퍼센트 증가하는 정도를 주요 지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신성한 텍스트, 꾸란을 가르치고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이슬람의 본거지인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숫자가 반영하는 것은 비종교적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에 국한해서이다.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위험한 행동이다. 따라서 실제 숫자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이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 배교할 경우 사형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을 버릴 준비가 된 무슬림이 천지에 깔렸다.

기독교의 반응

확실히, 무종교자(nones)의 부상은 서구만의 현상이 아니다. 불신앙과 비종교의 증가는 이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적인 현상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무슬림들 사이에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 중에는 이슬람 국가를 포함하여 지구 끝까지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무슬림 이웃을 가진 사람도 있다. 성령께서 무슬림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지금이야말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선포할 적기이다. 성령의 역사를 증명하는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

주로 세속 매체에 기재된 지금까지의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 찬성하여 이슬람을 포기하는 무슬림이다. 그러나 전 세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사역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속속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과 달리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까지 있음을 증명한 다. 더 힘을 내어 무슬림에게로 나아가자.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④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위치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공생애(共生輝)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마 9:1~2; 막 2:1~5).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발달된 가버나움은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도 성행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 근교의 농업도 발달해 가버나움은 종합적인 경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눔의 마을'입니다. 여기서 나눔은 구약 예언서의 저자 나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나눔은 가버나움을 세운 사람이거나 가버나움 출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성경에만 등장하는데 16번 정도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자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가버

나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공생애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마 4:13).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기

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러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마태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지만 그들의 고향은 벳새다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은 다섯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신

의 동네(Lord's own town 마 9:1)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

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과 개인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막 1:21; 2:1).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회당은 로마의 백부장이 지은 회당이었습니다. 성이 높습니다(눅 7:5).

아울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부장의 종(마 8:5-13)을 고치셨고, 네 명의 친구가 데려와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막 2:1-12)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마 8:14-15; 막 1:29-31). 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요 4:46-54)을 치유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돌씩 짊을 지어 전도를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였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전초기지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라신, 벳새다와 더불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버나움을 저주하셨습니다(

마 11:20-24; 눅 10:13-15).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가버나움은 철저히 망합니다. 데이빗 패드필드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4세기 중엽에 대형 지진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습니다. 7세기에 다시 큰 지진을 경험하며 한 번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은 재건되지 않고 한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십자군 전쟁 이전에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가버나움은 1838년 미국의 탐험가 에드워드 로빈슨이 폐허로 변한 가버나움을 발굴하였

고, 1894년 작은 형제회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헬라어로 '베드로'가 새겨진 푼말과 어선의 그림을 발견하였습니다. 1920년 이후에 기독교의 성지로 발굴되고 기념 예배당과 같은 건물이 건축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농업, 어업 그리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은 무역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벳길과 육지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가버

나움은 '해변 고속도로(Via Maris)'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변 고속도로(Via Maris)'는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무역 도로였습니다. 로마시절에도 많은 물류가 이동하는 무역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해변 고속도로'는 가버나움을 번성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활발한 경제 활동과 상당한 교통량이 있어서 지역의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세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가 그곳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 9:9).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가버나움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군의 파견대가 주둔했었고 로마군 장병들의 숙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나름대로 탁월한 국제도시였습니다. 로마로 직접 연결된 도로가 있었고, 유대 땅에서는 특이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내는 상당한 규모의 다문화 국제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의 핫이슈(Hot Issue)였던 예수님의 사역은 무역 보다파리에 실려서 타고 이미 세계에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chap1207@hotmail.com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오세훈 목사, 본부장(대행) 김선중 목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선교회’ 되어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갈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KAPC World Mission Society 이하 WMS)는 지난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소재 그랜드비우 호텔에서 중남미 선교대회 및 이사회 총회를 열고 제 7대 이사장 오세훈 목사와 부이사장 장성철 목사(보스톤장로교회)를 선출한 바 있다. 이후 이사회는 세계선교회를 이끌어갈 임원단을 구성했다. 신임 임원단은 △서기 한세영 목사(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부서기

조웅철 목사(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 퀸즈장로교회) △부회계 박성호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본부장(대행) 김선중 목사를 선출하고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7일 본사를 방문한 오세훈 목사와 김선중 목사를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 보았다.

(KAPC 세계선교회)

이사장 오세훈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KAPC 세계선교회는 총회 상비부로 소속되어 있었으나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총회 선교사역을 위해 2005년 제 29회 총회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KAPC World Mission Society) 정관을 채택하고 이사회를 출범했다. WMS는 총회산하 교회들의 협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교회의 대 사명을 완수하고자 총회와 별도로 비영리

중남미 파송선교사 가정을 초청하여 예배와 세미나, 선교보고 등을 통해 영적 재충전과 재훈련을 받고 많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선교대회에서 브라질노회 3인(오기곤 목사, 이종원 목사, 최은성 목사)과 중남미노회 장영서 선교사 등 4가정을 파송했다고 들려주었다.

(금년 KAPC WMS 활동사역)

선교지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를 도왔으며 선교사들의 총회 참석 비용도 일부 후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본사를 방문한 이사장 오세훈 목사(우)와 본부장(대행) 김선중 목사(좌)

보다 투명한 재정과 사역을 통해 지역교회가 맘껏 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선교회보도 만들어 세계선교회의 소식을 빠르게 널리 전하며 함께 선교를 이뤄 가고파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이사 5명과 후원이사 12명으로 이사회를 조직했다. 현재 108명의 총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총회기관이나 독립된 기관”이라고 이사장 오세훈 목사가 설명했다.

(중남미 선교대회)

KAPC WMS에서 지난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선교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금년에 아르헨티나를 선교대회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중남미에 선교사들이 많아 선교사들이 모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선교대회에 30여 가정의

돕기 위해 지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긴급 후원금으로 \$28,829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한인세계선교사 복지지원 제단인 KWMCF와 MOU를 맺고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 하도록 했으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A)와도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전해 준다. 뿐만 아니라 GMS, 고신 선교회, 합신 선교회와도 제휴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썼다고 소개했다.

(제 7대 이사회 신임 임원들의 비전)

신임 임원회는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선교회’(고전16:18)라는 모토를 정하고 계속해서 선교회를 발전시키며 총회가 선교의 지경

을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운영이사, 선교사님들을 재정비하고 장로님들을 이사로 영입했다. 또한 지역 선교부를 만들어 연합과 협력을 하며 지역 선교사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주기적인 지역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사들을 재충전시키며 선교지의 고충을 듣고 위로하며 돕는 선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이사장과 본부장대행이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고 본부장(대행) 김선중 목사도 무임으로 봉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오세훈 목사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총괄하는 일이다. 임기동안 세대교체를 위한 초석을 만들려고 한다. 이 일을 위해 본부장은 정책 수립을 하고 연락망

을 조직하며 세계선교회의 홍보를 위해 일하고 교회와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일, 총회산하 108가정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남미, 유럽, 필리핀, 캄보디아, 멕시코 등에 지역 책임자도 세워 원활한 네트워크를 세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중 본부장대행은 “선교대회를 매년 개최하면 좋겠고, 보다 투명한 재정과 사역을 통해 지역교회가 맘껏 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선교회보도 만들어 세계선교회의 소식을 빠르게 널리 전하며 함께 선교를 이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KAPC WMS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ikapc@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보라빛 대강절

대강절(Advent)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강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의 어원은 “오심, 방문”(Adventus)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대강절 예전(禮典)의 색깔은 보라색(purple)입니다. 교회 강단의 휘장이나 설교자의 스톨도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색의 의미는 회개와 기다림,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순절의 색깔이기도 한 보라색은 신비한 영성, 왕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강절에는 4주간의 주일마다 4개의 촛불을 차례로 밝힙니다.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기다림과 소망, 회개와 평화,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의 빛은 온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대강절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대망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성육신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붙들고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시대 성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있습니다.

대강절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야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약속,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주의 깊게 읽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종로트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러 오셨습니다.

이번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마음의 촛불을 켜고 세상을 밝히는 보라빛 대강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한복음 12:46)

bible66@gmail.com

LA 동부장로교회 특별 성탄 선물.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설교집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LA 동부장로교회 담임 김정오 목사 - 제 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머리말 중에서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천당의 모습 V (계 22:1-5) 찬 49장

신천신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안의 교회
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첫째, 어린 양의 보좌
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마십니다. (1) 에덴의
네 강줄기의 실체를 통해 그 백성의 모든 활동
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
다. 둘째, 여기, 생명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그 백성을 항상 새롭게 하는 생명의 원천임을
보입니다.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다

른 면입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
는 것은 구속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주와 밤이 없고 항상 영화로운 빛 안
에 삽니다. (3) 그리스도의 입재가 충만함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새 창조적 활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우리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화 재림을 맞을 준비자 (계 22:6-9) 찬 408장

계시록 첫 부분에 나온 재림 예언이 또 나타
난 본문은 누구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째, 그 나라 왕의 재림을 아는 자가 복됩니다.
(6) 역사의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
나님은 구속을 마치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 보
내십니다.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
은 재림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둘째, 그 예언을 이해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복됩니다. (7) 도적같이 홀연히 오는 재
림의 예고를 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
니다. 그날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하여 자신
을 살피며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셋째, 하나
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복됩니다. (8-9) 요한
은 너무 감격하여 천사에게 경배하러 할 때 오
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 그대로 행하라 (계 22:10-11) 찬 513장

구속사의 완성인 재림을 앞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그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구속
의 일곱인봉이 모두 열리는 날은 긴박한 때입
니다. 부활이 죽음을 증거하듯, 재림이 앞의 두
사건의 효능을 증거합니다. 둘째, 불의한 자의
심판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 긴박한 때에 악

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 때 진
정한 심판자인 주께 돌리야 합니다. 셋째, 거
룩한 자는 있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허세와
교만에서 벗어나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
는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정
결하게 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
한 자로 살아갑시다. (빌 4:11-12)

목 재림의 주를 기다리라 (계 22:12-15) 찬 161장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째,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행위대로 갚아주
십니다. (12) 성령을 위하여 심은 모든 것은 상
급 곧, 영생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둘
째,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마치십니다. 창세기
래로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로 완전 성취하신 구원을 재림으로 완성하시
고 신천신지로 완성된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

니다. 악곡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그는 말과
와 오메가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둘로 나
누십니다. (14-15) 택한 자는 구원을 받아 그
성에 들어가나, 불택자는 정죄를 받아 성 밖으
로 내쳐집니다. 그의 피로 씻음받은 자와 거짓
교훈에 빠져 불의한 자들은 결코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으로 이 특권을 주신 재림
의 주를 사모합니다.

금 상징주의들의 완성 (계 22:16-17) 찬 162장

신구약 성경에 여러 상징과 여러 모형으로
보이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실
체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는 다윗의 뿌리이
십니다. (16)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모
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우리 주님은 만왕
의 왕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둘째, 광명한 새
벽 별이십니다. (16) 언제 어디서나 언약 백성

의 목표이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
실이 드러났습니다. (요 14:6) 그래서 예수 안
에 거하는 자는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
물로 변하게 됩니다. 셋째, 그는 생명수이십니
다. 구속을 마치시는 날,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영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17)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 구속을 즐겨워합니다.

토 성경의 절대권위 (계 22:18-19) 찬 164장

요한은 구속 완성을 예언하는 계시(성경)의
신적권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시의 가르
침을 가감하는 자는 세가지 징벌을 경고합니
다. 첫째, 성경의 재앙을 더한다고 하십니다.
(18) 성경에 덧붙이는 일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니 버림

받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계시를 근
거한 자의 믿음만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셋
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경 권위
를 깨뜨린 신앙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신적권위를 주장합니
다. 성경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교회음악 이야기(25)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성탄절 찬양 - "사랑이 예 오셨네"

19세기에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섬에서 나환자
들을 위해 선교 사역했던 조셉 데미안(Joseph
Demien 1840-1889)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려 가기 전에 뜨거
운 물을 먹으려 컵에 붓다가 실수로 자신의 발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두려
운 마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역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무
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씻으며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
의 설교 시간이 되어 그가 평소에 오프닝을 했던
"나의 동료 신자 여러분"이란 말에서 말을 바꾸어
"나의 동료 나환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
니다. 드디어 그는 그들을 동료라고 부를 수 있었
고 드디어 그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에 감격
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
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조셉 데미안이 드디어 자신도 나환자가 되었다
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성육신하
여 친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구세주요 사랑의 왕
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
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
라" (눅 4:18-19)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성
경을 읽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사 61:1-2)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
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은 단순히 은혜받은 자들
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받은 자들
이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구속 사
역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메
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중
요한 고리(Anchor)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
스도를 향해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라
고 소리높여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찬양 중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찬양은 "Gloria in excelsis Deo (높은 곳엔 하나
님께 영광)" 입니다. 이 텍스트는 2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 교회로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초기 기독교
인들의 찬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려졌던 가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 미사에서 기본 골격을 이루
는 미사 통상문(Ordinary Mass)인 Kyrie(주여 우
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Gloria(영광), Credo(신앙고
백), Sanctus, Benedictus(거룩, 축복), 그리고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에 포함된 예배의 중
요 요소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
습니다.

이 통상문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 중 루
터를 제외한 다른 개혁자들은 그들의 예전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습니. 하지만 예외적으로 칼빈
을 포함한 모든 개혁자들이 공히 예전에 포함시킨
것은 이 Gloria 텍스트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
독교 예배 찬양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
적을 상기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Gloria 텍스트의 성경적 기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전 내용을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고대하
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눅
2:10-11)고 선포합니다. 여어 수많은 천사들이 메
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송을 드리는 것입니
다(눅 2:13-14).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았습
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영광 찬양을 통해 확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드리며 그 사건 안
에 암시되어 있는 가장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모든 일 가운데 위대한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하나
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
니다. 마치 조셉 데미안이 드디어 자신도 나환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이 아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
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죽음을 맞이
하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터게이트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213) 481-2779
www.srcla.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한길교회
담임목사: 이병준

20 Arthur St. Ridgefield Park, NJ

Tel.(201)615-14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인환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